

## 인터넷 속 개인 방송국 뜬다

나우콤의 아프리카 등... 프로슈머 서비스 플랫폼 제공

UCC(User Created Content) 서비스는 이제 반짝 나타났다 사라지는 트렌드가 아닌 인터넷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다. 이용자들은 이제 수동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단방향 매체였던 방송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이제 인터넷은 단순히 시청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일반인들을 새로운 방송 콘텐츠 제공자로 만들었다.

나우콤은 지난달 개인방송 서비스인 <아프리카>를 정식 런칭하며 쌍방향 멀티미디어 개인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는 누구나 방송의 주인공이 되어 시청자와 함께 자신만의 방송 스타일과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신 개념의 개인방송 미디어다.

웹캠이나 영상캡처장치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비용 없이도 개인이 손쉽게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다. 또한 아프리카 플레이어만 설치하면, 리모콘을 누르듯 채널을 쉽게 골라보면서 전세계 수백명의 사람들과 대화하며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웹캠을 이용해 개인의 재능과 끼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물론, PC 모니터에 보여 지는 모든 것을 실시간 방송할 수 있는 데스크톱 방송도 가능하다.

지난해 5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진행한 아프리카는 개인 방송 플랫폼을 제공해 네티즌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어 모았다.

시범서비스 기간 일평균 동시접속자수 3만명, 실시간으로 개설되는 평균 채널 수 450개, 하루에 개설되는 평균 방송채널 수 3만2,000개, 현재까지 개설된 누적 방송채널 수 480만개라는 수치는 네티즌들이 새로운 방송놀이 문화에 열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특히 지난 시리아전 축구 생중계에는 한꺼번에 60만명이나 몰려



동시접속자수만 5만명에 달했고, 지난 2월 한 달간 방문자수는 무려 150만명에 달했다. 아마추어 네티즌 해설자의 증계, 여럿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관전과 응원의 즐거움, 채팅으로 만들어 내는 독특한 응원 등은 새로운 스포츠 관전문화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다.

문용식 나우콤 사장은 “아프리카를 PC 뿐 아니라 모바일, TV 등 모든 미디어 기기에 적용될 수 있는 No1. 개인방송 플랫폼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현재 DMB·IPTV·DTV 등에서 보여 지는 방송의 변화가 플랫폼의 변화 등 기술적 측면이라면, 아프리카는 개인이 방송을 만들고 즐기는 등 방송의 주체를 거대자본에서 개인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서 세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박현수 기자

## 인텔 · MS, 울트라 모바일 PC 공개

올 세빗서 첫 선 ... 삼성 등 3개사 플랫폼 공개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세빗(CeBIT)에서 '울트라모바일 PC(Ultra Mobile PC, 이하 UMPC)' 영역을 공개했다. UMPC 영역이란 터치스크린 및 펜, 키보드 등의 입력방식으로 통해 통신과 엔터테인먼트 및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다양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작고, 우수한 모바일 PC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행사에서 인텔은 자사의 저전력 기술로 UMPC 영역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을 선보이고 향후 몇 년 내에 현재의 프로세서 온도와 전력소모량을 10분의 1 이하로 줄이기 위한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선

멀로니 인텔 수석 부사장은 UMPC에 대해 인텔의 세부 연구사항을 설명하며 타깃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또 MS도 윈도 XP 태블릿 OS가 UMPC 하드웨어 규격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UMPC 영역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사는 UMPC 상용화를 가능하게 할 지원전략과 삼성과 아수스(Asus), 파운더(Founder)등 3개 회사의 UMPC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글 양기석 기자

### MS의 UMPC 전략에 대한 일문일답

#### UMPC란

UMPC는 윈도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출장 또는 이동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 펜, 특수한 버튼, 키보드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UMPC는 이전에 '오리가미(Origami)' 라는 코드명으로 불렸던 프로젝트로 현대의 휴대전화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디바이스가 될 것이다.

#### UMPC의 근간이 되는 기술은

UMPC는 MS 윈도 XP 태블릿 PC 에디션 운영체제와 MS 파트너들이 개발한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을 융합한 것이다. 이전의 모바일 컴퓨터와 비교할 때 휴대성과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 일례로

UMPC를 통해 미리 설치되는 윈도 XP용 마이크로소프트 터치 팩(Microsoft Touch Pack)은 터치스크린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최적화, 이동 중 사용 편의성을 향상한다. 또한 새로운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스킨용 브릴리언트 블랙(Brilliant Black for Windows Media Player skin)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의 휴대용 미디어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제1세대 UMPC는 윈도 XP 태블릿 PC 에디션 2005를 기반으로 할 것이지만 향후 모델은 <윈도 비스타>를 기반으로 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하드웨어 디자인은 하드웨어 제조업체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모든 UMPC는 소형 경량의 디자인에 휴대성과 입력이 간편하도록 디자인될 것이다.

#### 다른 노트북 PC 등과의 차이점은

UMPC는 작고 가볍기 때문에 PC보다 휴대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 하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PC가 아닌 일반적인 PC와도 쉽게 동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 · 영화 · 사진 · 오피스 문서 등을 이동 중에 활용할 수 있다.

#### UMPC의 가격과 공급 시기는

가격은 OEM 파트너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599달러(미화) ~ 999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한 제품으로는 삼성전자와 파운더 등이 2006년 2분기에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수스도 곧 이어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 비아 프로세서를 장착한 테이블키오스크(TabletKiosk), 페이스블레이드 재팬(Pace Blade Japan) 등도 올 2분기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 모바일 기기 보안 위협 '발등의 불'

### PDA · 휴대용 게임기 통한 금융 범죄 위협 증가

휴대전화, PDA 등의 모바일 기기가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있는 공격자들에게 새로운 타깃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보 보안 전문업체인 시만텍은 지난달 발표한 '인터넷 보안 위협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업무 환경 및 개인 활동에서 모바일 단말기를 사용한 금융 활동, 엔터테인먼트 활동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X박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및 PSP, 닌텐도 DS와 같은 제품들이 인터넷 연결 기능을 추가하면서 새로운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아·태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인 악성 코드가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타깃으로하여 사용자의 암호를 훔치려는 리니지 트로이 바이러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보안 위협의 새로운 타깃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향은 봇(Bot)바이러스 감염률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5년 상반기 봇 피해 6위에서 하반기에는 5위로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다.

더욱이 봇은 개인 PC 및 기업 시스템을 임의로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기밀/금융 정보를 쉽게 빼내 금융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및 개인 사용자들은 물론이고 국가 차원에서의 보안 의식 강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사이버 범죄를 위한 보안 위협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의 사이버 범죄들은 컴퓨터 및 인터넷 구성요소를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공격자들은 이제 방화벽, 라우터 등의 전통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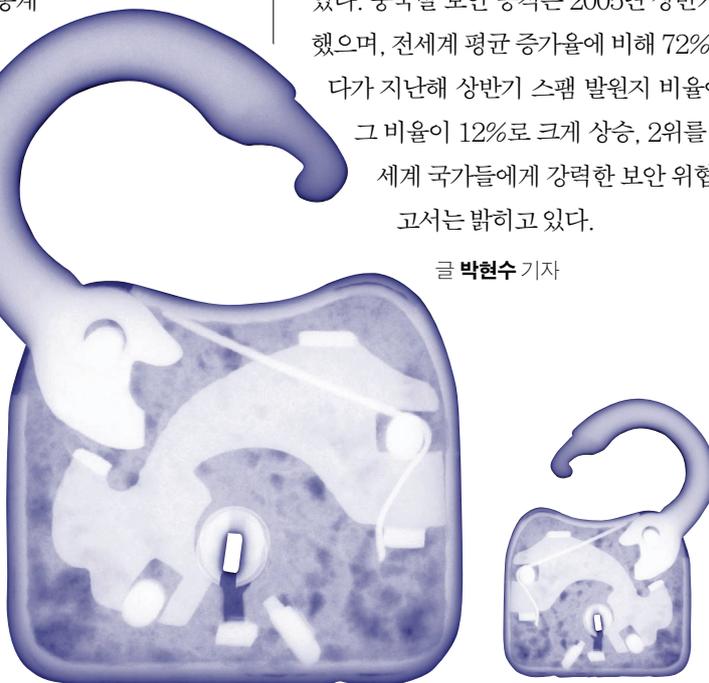
경계 보안 장비를 타깃으로 한 다양한 목적을 가진 대량 공격 유형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대신 국지적 타깃, 웹 애플리케이션, 데스크톱 등을 공격해 개인, 금융 및 중요 정보를 얻어내려 하며, 이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는 사이버 범죄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피싱 공격은 119개의 이메일 메시지마다 하나씩 발견됐으며, 중요 정보를 유출시킬 가능성을 가진 모듈형 악성 코드도 악성 코드 샘플 상위 50개 중 88%를 차지하는 등 명의 도용, 신용 카드 사기 등의 사이버 금융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중국이 강력한 보안 위협 존재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 공격 진원지 통계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중국발 보안 공격은 2005년 상반기에 비해 153%로 크게 증가했으며, 전세계 평균 증가율에 비해 72%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지난해 상반기 스팸 발원지 비율에서도 4위에 올랐던 중국은 그 비율이 12%로 크게 상승, 2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중국은 전세계 국가들에게 강력한 보안 위협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글 박현수 기자



## 한국퀘스트, SQL서버 시장 “앞으로”

### 시장 공략 전략 및 신제품 소개

데이터베이스 성능관리업체인 한국퀘스트소프트웨어는 최근 SQL 서버 성능관리 시장 공략을 위한 신제품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소개된 퀘스트의 SQL 서버 2005 지원 제품군으로는 중앙 관리 콘솔인 <QCSS(Quest Central for SQL Server)>를 비롯해 오라클 DB에 있는 데이터를 손쉽게 SQL 서버로 복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셰어플렉스(Shareplex)>, SQL 코드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리 전문 툴인 <토드 포 SQL 서버>, 신속한 백업과 빠른 투자 비용 회수를 위해 개발된 백업 및 복구 전문 솔루션 <라이트스피드>, 그리고 서버 한계 용량 측정을 위한 성능 점검 툴인 <벤치마크 팩토리> 등이다.

퀘스트소프트웨어의 SQL 서버 전문가인 더글라스 크리스탈(Douglas Crystal)은 “한국 DB시장은 전통적으로 오라클이 강세지



SQL 서버 시장 공략을 위한 신 제품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더글라스 크리스탈 퀘스트소프트웨어 DB아키텍트

만, 점차적으로 SQL 서버 사용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이에 한국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SQL 2005를 지원할 제품군을 통해 기업들의 대용량 데이터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2월 인성디지털과 라이트스피드와 토드 포 SQL 서버에 대해 독점 총판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한국퀘스트는 이번 신제품 소개를 계기로 SQL서버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한국퀘스트는 신제품 발표와 더불어 ‘최적의 SQL 백업 및 활용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라이트스피드를 소개하는 것을 비

롯해 ▲퀘스트에서 제안하는 SQL 관리 방안 ▲SQL 백업 활용사례 ▲SQL튜닝 및 모니터링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글 양기석 기자

##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안 심의 속행

### 통신위, 불법보조금 단속 강화 일환

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127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단말기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신위는 단말기 보조금의 일부 합법화되면서 불법 마케팅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과징금산정기준안에 대하여 심의속행하기로 결

정했다. 이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보조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과징금 수준 및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현행 과징금 부과 방식은 과거 매출액에 따라 기본 과징금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얻은 이득에 과징금이 비례하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과징금 부과대상을 ‘불법보조금 지급을 통해 유치한 가입자(신규(010/전화) 및 기기변경)로부터 얻은 매출액’으로 변경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통신위의 이번 심의 속행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지난달 신고한 이용약관상의 보조금 수준이 통신위원회 회의 예상보다 다소 높음에 따라 부과준율의 주요 요소인 위반 보조금의 수준 등 구체적인 위반실태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 반영하기 위해 결정됐다.

글 양기석 기자